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이성재_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계획(안)

CONTENTS

- 1. 반려동물 복지·연관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 3
- 2. 전북의 현황과 방향 5
- 3. 반려동물 복지·연관산업 세부 추진방안 8

■ 본 이슈브리핑은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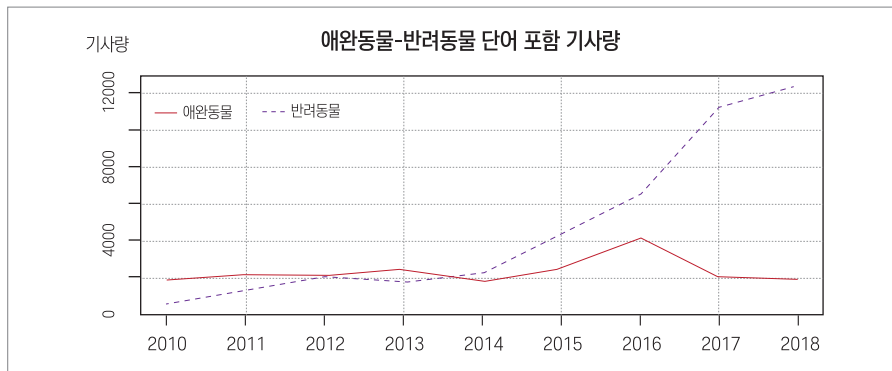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18년 23.7%에서 '25년 3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반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투입 증가 및 안전문제 등이 야기됨에 따라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 의식이 필요한 상황임
-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 연관산업의 스펙트럼 확대 등은 정부의 동물 복지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촉진시키고 있음
- 전북은 유기동물 처리두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장변화와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방안이 요구됨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선도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단계별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가 중요함
-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업의 합동 지도·점검 강화, 동물교육보호센터 조성, 유기동물 입양·구조·위탁관리 비용 지원, 길고양이 TNR 중성화수술 지원, 문화 및 산업 축제 등의 사업추진이 요구됨
-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놀이터 조성, 복합 문화공간 조성, 동물교감 치유단지 조성, 국가 유공견 명예전당 건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건강 기능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펫푸드 및 애완용품 등 연관 분야 산업화 지원에 주력해야 됨

1. 반려동물 복지·연관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

1.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복지

◎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사회적 관심의 지속적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18년 기준 약 511만 가구(23.7%)
 -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5년 3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
- 또한, 한국사회에서 관련 주제가 과거에는 애완동물이 많았으나 ‘14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로 이동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



자료 :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 대두 vs 반려동물 문화 성숙의 더딤

-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 강조
- 반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투입 증가 및 안전문제 등이 야기됨에 따라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의식 필요
 - 반려견 인식표, 반려견 외출시 목줄 착용 등 소비자 의무 미준수 사례가 여전하지만 의식 수준 미성숙 및 홍보·교육 부족, 법적 단속 한계 등으로 어려움 발생

2.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및 확대

◎ 반려동물 및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

-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15년~‘17년 동안 연평균 14.1%씩 성장하여 ‘17년 기준 약 2조 3,3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23년 4.6조원, '27년 6조원의 시장규모로 예측(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스펙트럼 확대

- 반려동물 시장은 크게 생산, 유통, 반려(가정), 사후 등의 연관산업 분야로 구분되며, 각 Value Chain별로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KB경영연구소)

* (생산) 번식, 사육, 교육 등, (유통) 분양, 수입, 동물운송, (반려) 사료 및 식품제조, 동물의약품제조, 수의 및 진료서비스, 미용, 금융서비스, (사후) 사체 처리, 장례서비스 등

-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 사료산업은 4,841억원, 용품관련 산업 3,849억원, 수의 서비스업 6,551억원, 장묘 및 보호서비스 338억 규모(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근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경우 수입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나 국내 생산업체의 판매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시장, 동물병원, 장묘업 등 사후 서비스 시장도 성장 추세

3. 정부의 동물 복지 및 산업 육성 정책

◎ 100대 국정과제 및 동물 보호·복지 종합 5개년 계획(2020~2024) 수립

-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 보호수준 제고를 목표로 제시

* 국정과제 :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동물복지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6대 분야 제시

* 6대 분야 :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 반려동물산업을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 대책 발표('16.7월)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육성,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에 중점

-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19.12.4)에서 펫 푸드를 유망식품으로 선정하고, 펫 푸드의 국산 제품 경쟁력 확보 강화

* 5대 유망식품 : 맞춤형·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II. 전북의 현황과 방향

1. 동물 관리 및 시설

◎ 반려동물 양육 현황

-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반려동물 수는 약 202천 마리로 전체 가구의 14%로 추정('17년 추정)
 - 전국의 반려동물 수는 약 8,950천 마리로 전체 가구의 28.1%로 추정('17년)
 - * 전국 반려동물(마리) : 개 6,620천, 고양이 2,330천, 총 593만 가구
 - * 전북 반려동물(마리) : 개 139천, 고양이 63천, 총 11만 가구
- '19년 전북의 동물등록 현황은 49,604마리로 전체 동물 중 약 35.7%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동물 등록대행기관은 109개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전국	977,961	1,070,628	1,175,568	1,304,077	2,126,272	32.1% 추정
전북	18,812	20,821	22,874	26,000	49,604	35.7% 추정

◎ 유기동물 처리

- 전북의 '19년 기준 유기동물 처리두수는 7,881마리로 전국 135,878마리 대비 5.8%이지만, 유기동물 처리두수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전국에 비해 입양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16) 3,672마리 → ('17) 4,520마리(23.1%↑) → ('18) 6,043마리(33.7%↑) → ('19) 7,881마리(30.4%↑)

구분	입양	자연사	안락사	반환	보호
전국	27.8%	24.8%	21.8%	12.8%	12.8%
전북	38.9%	20.9%	14.3%	10.9%	15.0%

◎ 반려동물 관련 시설

- 전북의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730개소이며 동물병원이 199개소(27.3%)로 가장 많고, 동물판매업 141개소(19.3%), 동물미용업 112개소(15.3%) 순
-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47개소(33.8%)로 가장 많고, 익산시 132개소(18.1%), 군산시 92개소(12.6%), 정읍시 57개소(7.8%) 순으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구분	합계	영업시설								기타			
		동물 생산업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 장모업	동물 전시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위탁 관리업	등록 대행업	동물 병원	반려견 놀이터	동물보호센터 (‘19)
전 국	21,530	1,106	4,206	64	33	371	4,649	251	2,598	3,505	4,426	35	286
전 북	730	55	141	2	1	10	112	19	70	92	199	2	27
전주시	247	2	52	1		6	52	7	29	39	49		10
군산시	92	1	20			1	23	2	14	17	13		1
익산시	132	14	39	1		1	18	6	15	9	28		1
정읍시	57	11	6			1	7		5	4	22		1
남원시	38	3	3		1		6		5	6	12	1	2
김제시	45	7	6			1	4	3	1	6	16		1
완주군	31	7	6							5	11	(1)	2
진안군	8	2	1								4		1
무주군	10	1	2								6		1
장수군	10									1	8		1
임실군	8										6	1	1
순창군	10									1	6		3
고창군	24	3	6							2	12		1
부안군	17	4					2	1	1	2	6		1

- 전북의 동물보호센터는 ‘19년 기준 27개소(100% 위탁)이며, 센터 운영인력은 77명(‘18년)으로 전국에서 경기와 서울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센터와 인력을 보유

* 지역별 개소(%) : 경기 21.8 > 서울 9.1 > 전북·대구·경북 8.7 > 전남 8.4 > 경남 6.7 순

* 운영인력(명) : 경기 166 > 서울 96 > 전북 77 > 경남 52 > 대구 50 > 강원 48 순

- ‘12년 도입되어 추진 중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정부 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 기준 전국에 262개소가 분포하며,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전북의 농장은 87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현황(호) : 전북 87 > 경기 34 > 충북 32 > 충남 29 > 전남 25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산란계, 양돈, 육계, 한우·육우, 젓소, 염소, 오리)으로 확대·시행

2. 전북 추진사업 및 향후 방향

- 반려동물과 관련해 전북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동물 보호 및 복지 중심으로 총 9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건변화 등을 고려시 여가·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필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계획(안)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 등 여건변화 고려시 여가·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필요

사업명	'18년	'19년	'20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9개사업	2,312	4,836	7,462	1,364	1,371	4,600	127	
유기동물 보호사업	547	720	720	-	216	504	-	계속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0	188	146	29	13	31	73	〃
유기동물구조 및 보호비 지원	-	103	117	23	28	66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65	225	199	40	48	111	-	〃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임실)	1,500	3,500	-	-	-	-	-	균특
반려동물놀이시설 지원	-	100(완주)	100	-	50	50	-	균특이양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임실)	-	-	2,000		1,000	1,000	-	균특이양
동물교육보호센터(군산,정읍)	-	-	4,000	1,200		2,800		균특
동물복지 컨설팅사업	-	-	180	72	16	38	54	신규

여건변화	전북현황	추진방향
<p><동물복지 중요성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 두수 증가 : ('15년) 18,812 > ('19년) 49,604 · 유기동물처리 두수 증가 : ('16년) 3,672 > ('19년) 7,881 	⇒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
<p><반려동물 관심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가구 : ('10년) 17.4% > ('18년) 23.7% · 입양 의향 : ('10년) 59.2% > ('18년) 8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가구 수 증가 : ('17년) 14.9% > ('18년) 19.7% · 유기동물 입양 비율('19년) : 전북 38.9%(전국 27.8%) 	⇒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
<p><반려동물 관련시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15년) 1.9조 > ('17년) 2.3조 > ('27년) 6조 · 5대 유망식품 선정 : 특수식품(펫푸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연관식품 R&D 집적 농촌진흥청 외 산하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 대변은행, 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 전후방산업 육성기반 양호 사료 및 의약품제조업체(8), 동물교육보호센터, 지원센터, 장묘시설 등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Ⅲ. 반려동물 복지·연관산업 세부 추진방안

비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 반려동물 산업 선도	
1단계 (’03~)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 (10개사업, 158억원)	생산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업 합동 지도·점검 강화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교육보호센터 조성 : 유기동물 보호·입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소(’20년 군산, 정읍, ’21년 김제, ’22년 미정) - 동물생명존중·반려동물 소양 및 행동교정 교육 ○ 유기동물 입양비, 구조(포획)비, 위탁관리비 지원(계속) ○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사) 중성화수술 지원(계속) ○ 동물보호 문화 및 반려동물 산업 축제(’21년~)
2단계 (’19~)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 (7개사업, 191억원)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찾아가는 소규모 놀이터 조성 : 5개소(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 : 남원, 임실, ’19년 완주, ’20년 익산, ’21년 전주) ○ 휴양·오락·체험·편의 복합 문화공간(테마파크) 조성(’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지원센터·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임실군) ○ 동물 교감(매개) 치유단지 조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 상담센터, 동물매개치유 연구센터, 동물매개치료 수련원·힐링센터 ○ 국가 유공견(군견, 탐지견, 구조견) 명예전당 건립(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후 명예로운 노후를 위한 치료소(재활) 및 홍보관 조성
		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동물장묘시설(임실군) 조성(’18~’20)
3단계 (’20~)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3개사업, 906억원)	연관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센터, 동물케어 의료기술 개발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시험대(Test Bed)구축, 의약품 수출산업화 ○ 건강 기능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펫푸드 생산거점 강화, 가공산업 육성, 물류단지 조성, R&D 벨류체인 구축, 펫코노미 기반 조성 ○ 펫푸드(간식) 및 애완용품 등 연관 분야 산업화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관련(용품 등) 사업화 가능 분야의 창업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국산화 추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테마파크내 반려용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계획(안)

1 단계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반려동물의 생산·유통·반려·사후는 인간의 동물생명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출발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유기·학대·안전사고 등) 대응 중요

→ 생명존중·복지의식 확산 및 동물 보호 여건 마련을 통한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

1.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체 지도·점검 강화

- 알선·판매가능 월령(2개월령 이상) 미준수 및 개체관리카드 미작성과 기존 사육 방식에 의존하여 시설개선 및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 노력이 부족

- 상반기 도·시군 합동, 하반기 시군 자체점검(생산·판매 외 6개 업종 포함)

*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시 경매 및 판매 제한('20.1시행), 사육환경 시설기준 개정('20.10시행)

2.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입양 여건 개선

- 도내 위탁 동물보호센터 대부분이 동물병원으로 수용공간 부족 등 보호환경이 열악하여 안락사 문제 대두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 사설보호소의 경우 법적인 기준이 전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기존 위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자연·안락사, 사체처리, 보호·시설상황 수시 점검 및 유실·유기동물의 쾌적한 보호·관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4개소 조성)

→ ('20년) 군산, 정읍, ('21년 계획) 김제, ('22년 계획) 미정

- 도내 거점 치료소(동물병원)를 지정하여 교통사고 외상 등 유기동물 치료·재활

→ 전북대 동물의료센터 및 전북수의사회와 협의 추진

3. 길고양이 군집별 TNR 사업 추진

- 현재 TNR 사업은 발생민원 중심으로 산발적인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투입에 비해 개체수 감소 효과가 미비하고, 아파트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지역주민 불편 발생 및 캣맘과 일반시민과의 갈등 증가

* TNR(중성화수술사업) : Trap(잡고) - Neuter(중성화) - Return(되돌려줌)

* 길고양이는 적게는 3~10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내 고양이가 사라지면 그 지역을 다른 고양이가 새로 차지하는 식의 생활방식을 보이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 후 다시 제자리에 방사하는 방식으로 추진

- 도내 길고양이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군집별 집중포획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효율을 높이고 산발적 민원에 의한 출동 및 해소를 위해 TNR 병행 추진
 * 도내 길고양이 집중관리지역 : 39개소(전주 21, 군산 10, 익산 5, 정읍 2, 남원 1)
-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는 사유지에 급식소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민원 및 급식소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 길고양이 서식지 변화 등 모니터링 추진
 → 지역 캣맘,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들(주민)과 협력해 사업 추진

4. 동물등록제 개선 및 동물보호 홍보 강화

- 동물등록의 필요성·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 단속(과태료처분)실적 저조 등으로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음(동물 등록율 약 36% 추정)
- 동물등록제 및 소유주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 추진 및 단속 강화

시행주체	추진내용
도	시·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 단속·홍보 추진 * 주요 공원, 산책코스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 추진(월 1회 이상)
시·군	아파트 등 동물등록 현수막·안내문 부착·영업점 안내문 배부
동물병원	방문고객 동물등록 홍보, 고객대상 안내문자 발송, 포스터 부착
영업장	동물판매점은 동물등록 필수, 용품점·카페 등 동물등록 포스터 부착

5. 반려동물·동물보호 관련 교육 활성화 및 축제 개최

- 수도권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관련 정기적 문화강좌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하고 있으나 전북에서는 아직 동물보호·복지 행사가 거의 없는 실정임
- 반려인 대상 반려견 관련 소양교육·사회화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분기별 1회),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산업 축제 개최
 → 전주를 시작(시범추진)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 확대 추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
- 사업비 : 매년 2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량 : 연 4회(분기별 1회) * 지원단가 : 5백만원/1회
- 사업내용 : 반려동물 동반 기본 소양교육(소통방법·배설·산책·놀이·식사·수면·건강관리), 행동교정 체험, 동물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교육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계획(안)

→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축제 발굴 및 개최

<동물보호 문화축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비 : 1억원(국비) * 농식품부 공모신청 (임실군 오수의견문화제와 합동 추진)
- 지원내용 : 동물보호 문화축제 행사비(민간경상보조)
 - 동물보호·복지관련 정책홍보 및 동물생명존중 의식 고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2 단계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

반려동물 마릿수 및 양육인구의 증가에 비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휴식 및 문화공간의 부족
→ 반려동물과 반려인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및 동물 복지를 위한 인프라 조성

1. 쉽게 찾아가는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개물림 등 안전사고 발생과 비 반려인과 갈등심화로 전용 놀이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스트레스 완화와 적절한 운동 제공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의 교감활동을 통한 반려견 케어와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 필요
- 반려인들이 손쉽게 찾아가 수 있는 소규모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조성(5개소)

* 기 추진 : ('14)남원, ('18)임실, 추진 중 : ('19)완주, 추진계획 : ('20)익산, ('21)전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

- 사업기간 : 2019~2021년
- 사업비 : 3억원(도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3개소, 지원단가 1억원/개소당
- 사업내용 : 놀이공간 펜스설치, 수목식재, 놀이기구(오르기 및 내리기, 통과놀이기구, 장애물넘기 등), 배변 마킹장, 격리장, 음수시설, 풀장, 벤치, 파고라,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등

2.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테마파크) 조성

- 도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문화시설은 민간 위주의 소규모 펫카페 등의 형태로 체계화·다양화된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 문화·놀이공간 부재
- 휴양·오락·체험·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조성 및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오수의견 관광지 내)
- 사업기간 : 2020 ~ 2024년(5개년)
- 사업비 : 100억원[도비(균특이양)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휴양·편의) 반려견 동반 야영장, 펫레스토랑·카페·호텔 등, (교육·오락) 애견 스포츠장, 놀이터, (체험) 반려동물 용품·목줄·의류·간식 만들기 등

3. 동물 교감(매개) 치유단지 조성

- 서울시에서는 동물매개활동사업을 '16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는 원광대학교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가 동물매개치료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산과학원(농진청)에서 '학교멍멍', '학교꼬꼬', '학교짱총'이라는 교감활동 추진
- 동물교감활동·치료활동은 활발하나, 대부분 1:1로 직접 방문하는 활동형태이며, 체계화되고 집적화된 활동·치유단지는 부재함에 따라 동물을 매개로 한 교감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집적화

<동물 교감(매개) 치유단지 조성>

- 사업위치 : 남원시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부지 검토(국립치유농업원 내)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
- 사업비 : 300억원 정도(국비)
- 사업내용 : 동물교감 심리상담연구센터, 동물교감 심리상담소, 동물교감 활동·치료실, 치료도우미동물 지원센터, 치료수련원 등

4. 국가 유공견 명예의 전당 건립

- 전국의 국가 사역견(검역 탐지견, 경찰견, 군견, 인명 구조견 등)은 약 3,000 마리 정도로 추정되며, 은퇴 후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일부는 안락사 등 비복지적인 노후를 맞이함
- 군견, 탐지견, 인명구조견 등 국가 유공견의 은퇴 후 명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으로 국가 유공견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여 동물 복지·존엄성 향상 및 동물존중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국가 유공견 명예의 전당 건립>

- 사업위치 : 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내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년)
- 사업비 : 100억원 정도(국비)
- 사업내용 : 국가 사역견, 유공 은퇴견의 치료·재활 및 요양시설, 분야별 활동에 대한 체험관 및 업적기념 홍보관(전시관, 상영관, 기념공간 등)

5. 반려(유기)동물 사체 적정처리 및 장묘문화 확산

- 전국 동물장묘시설 26개소(민간 100%, '18년)에서 연간 688천두의 동물사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북은 민간 1개소(남원) 외에 공공동물장묘시설(임실)을 조성 중
- 반려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 처리(동물병원) 또는 불법매립·소각(개인)하는 경우가 많고, 유기동물 사체는 의료 또는 생활폐기물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개선 필요
- 공공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의 사체는 화장으로 전환

* 반려동물 장례비 : 평균 52만원(화장비 22만원, 관련용품 및 부가서비스 30만원)

* 의료폐기물 처리비 : 5천원/kg 수준

<유기동물 화장비 지원>

- 사업위치 : 공공동물장묘시설(임실군)
- 사업기간 : 공공동물장묘시설 완공 이후(21년 이후 사업화 검토)
- 사업비 : 1억원/년(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규모 : 2,500마리('19년 2,779마리 발생) / 사업단가 : 4만원(5천원/KG)
- 사업내용 :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안락사로 발생하는 유기동물 화장비 지원

3 단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가 '27년 6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도내 특화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적극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반려동물 산업의 가장 큰 분야인 사료·식품·동물약품 연구 개발·산업화 육성

1. 건강 기능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펫 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전용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효능 및 기능성 등이 강조
- 전북은 R&D기관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어 펫푸드의 기능성·안전성 제품개발을 통한 산업화 지원 기반이 양호하기 때문에 펫 푸드 생산·가공·유통·R&D 거점 육성

<건강 기능성 펫 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 사업위치 : 전주, 익산, 정읍, 임실, 순창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
- 사업비 : 150억원(국비 75, 지방비 75)
- 사업내용 :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총) 분석 및 DB구축,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상용화 연구, 제품 효능(안전성·기능성)평가 등

2. 펫푸드(간식) 및 애완용품 등 연관 분야 산업화 개발지원

- 반려동물 주식 및 간식 등의 식품시장과 놀이용품, 문화용품 등 애완용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분야 산업화 선점 중요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주 원료로 기능성 간식 및 사료 상품화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아이디어 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

<펫푸드 및 애완용품 사업화 개발지원>

- 사업기간 : 2021년 ~ (시범사업 후 사업추진 및 규모 등 검토)
- 사업비 : 2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단가 : 100백만원(한도)/개소당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펫푸드(간식)·애완용품 등 상품화 개발지원
- 시행주체 : 펫푸드·애완용품 등 상품화 개발이 가능한 업체

3.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 국제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효능 및 안전성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대(Test bed)·제품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생산시설(Pilot Plant)을 구축하여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 등 포함) 시장의 선도적인 위치 선점

<(1단계)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 사업위치 : 익산시(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부지 활용)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
- 사업비 : 250억원(국비 125, 지방비 125)
- 사업내용 : 동물용의약품 전문 GLP(우수실험실) 기관 1개소 신설

<(2단계) 동물케어 의료기술 개발센터 구축>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
- 사업비 : 200억원(국비 1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의료기술 연구센터 및 시제품 연구·생산시설(Pilot plant) 구축

<(3단계) 반려동물 의약품·사료(첨가제) 등 시험대(Test bed) 구축>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
- 사업비 : 300억원(국비 150, 지방비 150)
- 사업내용 : 동물용 의약품·사료·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시험대(Test bed) 설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계획(안)

< 투자계획(안) >

세부실천과제	시작년도	사업량 ('20)	연도별 투자계획(백만원)				
			합계	'20	'21	'22	'23 이후
총 계 (3개 분야, 20개 과제)			115,717	8,462	30,255	29,075	47,925
1.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10개)		14,617	5,362	3,855	3,775	1,625
유기동물보호사업	'03	6,000	3,720	720	1,050	1,050	900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8	728	596	146	150	150	15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8	1,327	799	199	200	200	200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19	1,807	477	117	120	120	120
동물교육보호센터 조성	'20	2개소	8,000	4,000	2,000	2,000	-
반려동물산업 축제	'21	1회	100	-	100	-	-
동물복지 컨설팅사업	'20	18개소	780	180	200	200	200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21	-	90	-	30	30	30
동물보호 홍보비	'21	-	15	-	5	5	5
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	'22	-	40	-	-	20	20
2.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	(7개)		10,500	2,100	2,200	4,100	2,100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비 지원	'18	1개소 (50억)		-	-	-	-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	'19	1개소 (1억)	200	100	100	-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원센터	'20	-	8,000	2,000	2,000	4,000
	여가캠핑장	'23	2,000				2,000
동물 사체처리비(화장비) 지원	'21	-	300	-	100	100	100
반려동물교감치유단지조성	'21	국립치유농업원('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내 포함하여 조성					
국가유공은퇴견명예전당건립	'23	-	5,000	-	-	-	5,000
3.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3개)		90,600	1,000	24,200	21,200	44,200
건강기능성 펫푸드산업 플랫폼구축	'21~	-	15,000	-	1,000	4,000	10,000
반려동물 관련 산업화 개발지원	'21~	-	600	-	200	200	200
동물용의약품클러스터구축	'20~	-	75,000	1,000	23,000	17,000	34,000



ISSUE BRIEFING
2020. 05. 08 Vol. 219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